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4(1)(1)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주몽 신화)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주몽 신화」와 「단군 신화」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와 설화적 화소를 중심으로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두 이야기 모두 건국 신화에 속하며, 건국 시조의 고귀한 혈통과 신이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단군 신화」와 달리 「주몽 신화」에서는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드러난다는 등의 차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지금의 화주(和州), 또는 성주(成州)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卒本州)는 요동 방면에 있다.

『국사(國史)』 「고려본기(高麗本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 성제의 성은 고씨(高氏)이며,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노닐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꺾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금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닭 되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또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 주었다. 이에 왕이 알을 쪼개 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일곱 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는데, 백 번 쏘면 백 번 다 적중하였다.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朱蒙)이라 이름하였다.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에 장자인 대소(帶素)가 왕께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하였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淹水)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건국 신화란 나라의 기원, 시조(始祖), 건국 등을 신성화한 이야기를 말한다. 신성화한다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그의 행위가 신적인 위상으로까지 떠받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국 신화는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면서도, 그 인물의 건국 행위를 신성화하고 그를 신격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① (가)와 (나)는 난생 설화 중에서 현존하는 인생란(人生卵) 설화이다.
- ② (가)와 (나)는 외세와의 치열한 싸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운다는 건국 신화이다.
- ③ (가)와 (나)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을 설정하여 그가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 ④ (가)와 (나)는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일치하는 사회라는 당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천손강림과 난생의 화소를 지니고 있다.
- ② 불교의 이치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 ③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제천 행사에서 서사시의 형태로 불렸고, 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⑤ 사물을 의인화한 허구적 전기 형식의 문학으로 풍자적 성격이 강하다.

5. (가)~(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a.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
- b.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
- c. 주인공은 일찍 가족과 헤어지거나 버려지는 등의 고난에 부딪힌다.
- d. 고난에 부딪힌 주인공은 조력자(양육자)를 만난다.
- e. 주인공은 위업을 달성한다.

- ① a, c ② a, d ③ a, e
- ④ b, d ⑤ c, e

신유형

「주몽 신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영웅 일대기 구조 및 신화적 상징성과 관련된 내용이 선지로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단군 신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 「주몽 신화」의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상고시대~고려 시대의 문학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소단원 도입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지금의 화주(和州), 또는 성주(成州)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卒本州)는 요동 방면에 있다.

『국사(國史)』 「고려본기(高麗本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 성제의 성은 고씨(高氏)이며,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노닐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꺾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금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닛 되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또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 주었다.

이에 왕이 알을 쪼개 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일곱 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 번 쏘면 백 번 다 적중하였다.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朱蒙)이라 이름하였다.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에 장자인 대소(帶素)가 왕께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하였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淹水)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흠어들었다. 이로써 뒤쫓아 오던 기마병은 건너지를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현도군의 지경)에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러나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류수(沸流水)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 인하여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 - 본성은 해(解)였으나, 천제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스스로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 -

이때의 나이가 12세였는데, 한나라 효원제(孝元帝) 건소(建昭) 2년 갑신(甲申)에 즉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백 8호나 되었다.

- 「주몽 신화」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이한 탄생 과정은 인물의 비범함을 부각한다.
- ②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 것은 고조선 건국 신화와 대조적이다.
- ③ 자연물이 인간의 믿음과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었다.
- ④ 정형화된 일대기 구조는 문학 작품을 구전할 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 ⑤ 서사 구조가 훗날 서사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의 요소가 된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글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천제-해모수-주몽’에 이르는 삼대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다.
- ④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동식물을 신성시하는 당대인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⑤ 고구려인들에게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을 것이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천신과 수신의 결합에 의해 시조가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 ② ㉡: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난생 설화 중에서 사람이 알을 낳은 인생란(人生卵) 설화라고 할 수 있다.
- ④ ㉣: 주몽의 이름과 관련이 있으며 주몽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 ⑤ ㉤: 함께 부여를 떠나는 ‘오이’ 등 세 사람의 벗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와 자라’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9. 위 작품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영웅 일대기 구조와 작품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귀한 혈통: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남.
- ② 비정상적 출생: 유화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남.
- ③ 비범한 능력: 물고기와 자라에게 다리를 놓게 함.
- ④ 성장 후 시련: ‘주몽’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위협에 처함.
- ⑤ 위업 성취: 고구려를 건국하고 성을 ‘고’로 삼음.

1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난생 화소는 태양 숭배 사상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 ② 새나 짐승이 알을 보호하는 것은 주인공이 신성한 인물임을 드러낸다.
- ③ 천부지모(天父地母)형 화소는 고대인의 민족적 자부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④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신성한 국가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⑤ 주몽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현세에서의 성취를 중시하는 고대인의 낙관주의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1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었을 것이다.
- ② 『국사(國史)』 「고려본기(高麗本記)」의 내용을 인용하여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③ 갈등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대소를 비롯한 금와 왕의 아들들과 오이 등 세 친구의 열등감이 잘 드러난다.
- ④ 주몽이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신성관념을 드러내어 신성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한국 문학에서 영웅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는 다른 작품으로는 홍길동전, 유충렬전 등을 들 수 있다.

12.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② 한 민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서사 문학이다.
- ③ 독백과 대화의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중심 인물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제시하여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13~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지금의 화주(和州), 또는 성주(成州)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卒本州)는 요동 방면에 있다.

『국사(國史)』 「고려본기(高麗本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 성제의 성은 고씨(高氏)이며,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여러 아우들과 노닐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꺾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금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닭 되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또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하려 덮어 주었다. 이에 왕이 알을 쪼개 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겹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일곱 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 번 쏘면 백 번 다 적중하였다.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朱蒙)이라 이름하였다.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에 장자인 대소(帶素)가 왕께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하였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淹水)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흠어졌다. 이로써 뒤쫓아 오던 기마병은 건너지를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현도군의 지경)에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그러나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류수(沸流水)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 인하여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 - 본성은 해(解)였으나, 천제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스스로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 - 이때의 나이가 12세였는데, 한나라 효원제(孝元帝) 건소(建昭) 2년 갑신(甲申)에 즉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백 8호나 되었다.

- 「주몽 신화」

(나)

[앞부분 줄거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桓雄)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쉼 한 심지와 마늘 스무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A]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忌)한 지 이십일 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

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일렀다.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오십 년인 경인년-요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오십 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에 평양성-지금의 서경(西京)-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불렀다.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에 옮겼다. 그곳을 공홀산(弓忽山)-혹은 궁이 방(方)자로도 되어 있다.-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 한다. 그는 일천오백 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封)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고 한다.

- 「단군 신화」

1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건국 신화에는 고대인의 풍부한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다양한 화소에는 고대인의 관념이나 의식, 신화적 상징성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전승해 오던 시대의 모습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건국 신화는 그 신화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집단을 하나로 묶어 주며 공동체적 의식을 높이고, 신화의 내용에 따른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 ① ㉠: 주몽이 하늘의 혈통을 타고 난 신성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고구려 백성들은 이러한 신성한 인물이 세운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② ㉡: 주몽의 혈통이 하늘 즉 태양과 달아 있는 것

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③ ㉠: 주몽이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주몽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세계를 깨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신화적 상징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④ ㉡: 주몽이 좋은 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가 좋은 말을 키워서 팔고 사는 활동이 활발한 사회 즉 상업이 발달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 ⑤ ㉢: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왕검’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때, 당대의 사회가 제정일치의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기 사항이 들어있다.
- ② ‘쑥’과 ‘마늘’은 주술적인 의미를 갖는다.
- ③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곰’과 ‘범’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 ⑤ ‘이십일 일’은 고대 제천 행사와 관련되어 전하며 축제적 성격을 띠는 기간이다.

15. (나)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몽 신화’와 윗글 모두 삼대기 구조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곰’은 당시 곰을 숭배했던 부족의 토tem이라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환웅은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존재이며, 동굴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매개 지점을 상징한다.
- ④ 곰이 인간이 되기를 바란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가 인본주의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 당시 사회가 신을 받들고 제사하는 일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금와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닭 되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또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 주었다. 이에 왕이 알을 쪼개 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일곱 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 번 쏘면 백 번 다 적중하였다.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朱蒙)이라 이름하였다.

(후략)

- 「주몽 신화」

(나)

[앞부분 줄거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桓雄)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 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忌)한 지 이십일 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檀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일렀다.

(중략)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가)의 주몽이 알일 때 버림을 받았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으로부터 도망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통해 주인공의 고난 극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의 주인공인 단군왕검은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고조선을 건국한다.

① (가)에는 '천제-해모수-주몽'의 삼대기 구조가, (나)에는 '환인-환웅-단군왕검'의 삼대기 구조가 나타난다.

② (나)에서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내용을 통해 천손하강의 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 역시 주몽이 천제의 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천손하강의 화소가 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천신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신의 딸인 유화가 결합한 것을 통해, (나)에서는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지상의 웅녀가 결합한 것을 통해 천부지모의 화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와 달리 (나)의 주인공인 단군왕검은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고조선을 건국하였으므로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②

ㄱ. (가)에는 '천제-해모수-주몽'의 삼대기 구조가, (나)에는 '환인-환웅-단군왕검'의 삼대기 구조가 나타난다.

ㄴ. (나)에서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내용을 통해 천손강림의 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 역시 주몽이 천제의 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천손강림의 화소가 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ㄷ. (가)에서는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나)에서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ㄹ. (가)에서 주몽과 금와왕, 금와왕의 아들들이 대립 관계에 있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ㅁ. (가)의 주몽이 알일 때 버림을 받았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으로부터 도망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통해 주인공의 고난 극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의 주인공인 단군왕검은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고조선을 건국한다.

3. 정답 ③

주몽은 천제의 손자이자 하백의 외손자이며, 단군왕검은 환웅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혈통은 건국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① 인생란(人生卵) 설화에 해당하는 것은 (가)뿐이다.

② 두 작품 모두 외세와의 치열한 싸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가)뿐이다.

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일치하는 사회라는 당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나)뿐이다.

4. 정답 ④

(가)와 (나) 모두 건국 신화로, 제천행사에서 서사시의 형태로 불렸다. 또한 (가)에는 '천제-해모수-주몽'의 삼대기 구조가, (나)에는 '환인-환웅-단군왕검'의 삼대기 구조가 나타난다.

① 두 작품 모두 천손강림의 화소는 드러나지만 난생의 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은 (가)뿐이다.

②, ⑤ 두 작품 모두 관련이 없다.

③ (가)에서만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답 ③

a. 주몽은 천제의 손자이자 하백의 외손자이며, 단군왕검은 환웅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e. 주몽은 고구려를 세웠으며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우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b. (가)의 주몽이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으며,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났다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다.

c. (가)의 주몽이 알일 때 버림을 받았다는 내용만

을 확인할 수 있다.

d. (가)의 주몽이 고난에 부딪혔으나, 여러 동물들과 세 친구,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다.

6. **정답** ④

윗글이 구전을 통해 전해지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맞으나, 작품의 구조가 구전에 유리하게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윗글의 주몽은 알에서 탄생하였으며, 이러한 신이한 탄생 과정은 주몽이 비범한 인물임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윗글의 주몽이 알일 때 버림을 받았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으로부터 도망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통해 주인공의 고난 극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고조선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단군왕검은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고조선을 건국한다.

③ 염수에 이른 주몽의 말을 듣고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에 나타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이후 영웅 서사 문학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7. **정답** ④

주몽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동물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동식물을 신성시하는 당대인들의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야기의 서두에서 『국사(國史)』 「고려본기(高麗本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윗글의 주인공인 '주몽'을 중심으로 '천제-해모수-주몽'에 이르는 삼대가 모두 드러난다.

③ 윗글은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⑤ 윗글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여, 고구려인들에게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

8. **정답** ②

㉠은 태양 숭배 사상의 흔적이 드러나는 구절에 해당한다.

① ㉠은 건국 주체인 주몽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내용으로, 천신과 수신이 결합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에서 유화가 알을 낳은 것은, 주몽 신화가 인물 알에서 태어난다는 내용의 난생 설화 중에서 사람이 알을 낳은 인생란(人生卵) 설화에 해당함을 보여 준다.

④ ㉢을 통해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주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에서 '물고기와 자라'는 위기에 빠진 주몽을 돕는다는 점에서 함께 부여를 떠나는 '오이' 등 세 사람의 벗과 마찬가지로 조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 **정답** ③

윗글에서 영웅 일대기 구조 중,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주몽이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으며 활을 잘 쏘았다는 것이다.

① 주몽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영웅 일대기 구조 중에서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과 관련된 내용으므로 적절하다.

② 유화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는 것은, 영웅 일대기 구조 중에서 주인공의 비정상적 출생과 관련된 내용으므로 적절하다.

④ '주몽'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에 처했다는 것은, 영웅 일대기 구조 중에서 성장 후 시련과 관련된 내용으므로 적절하다.

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성을 '고'로 삼았다는 것은, 영웅 일대기 구조 중에서 위업 성취와 관련된 내용으므로 적절하다.

10. **정답** ⑤

주몽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현세에서의 성취를 중시하는 고대인의 낙관주의적 세계관과는 관련이 없다.

① 난생 화소는 주몽이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태

양 숭배 사상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은 햇빛이 방 속을 비추는 후로 유화가 알을 낳은 부분이다.

② 윗글에서 알(주몽)이 버림 받는 시련을 겪지만, 새나 짐승이 알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시련을 극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인공이 짐승의 조력을 받아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주인공이 신성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③ 천신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신의 딸인 유화가 결합한 것을 통해 천부지모(天父地母)형 화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④ 주몽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는 건국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여, 해당 국가의 백성들이 신성한 국가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11. 정답 ③

윗글에서 금와왕의 아들들과 주몽 간의 갈등 구조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오이 등 세 친구는 주몽의 조력자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주몽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는 건국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여, 해당 국가의 백성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 신성한 국가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② ‘『국사(國史)』 「고려본기(高麗本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주몽이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물의 신성성을 강조한 것에 해당한다.

⑤ 윗글에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이후 홍길동전, 유충렬전 등과 같은 영웅 서사 문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 정답 ③

윗글에서 금와왕의 아들들과 주몽 간의 갈등 구조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독백과 대화의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① 윗글은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이라는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주몽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는 건국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여, 해당 국가의 백성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 신성한 국가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④ 윗글은 난생 화소, 천부지모 화소 등 여러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건국 시조인 주몽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와 같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13. 정답 ④

주몽이 좋은 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의 사회를 좋은 말을 키워서 팔고 사는 상업이 발달한 사회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주몽의 아버지가 천신의 자손임을 밝히는 것으로, 이는 하늘의 혈통을 타고 난 주몽의 신성성을 강조하여 백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② ㉡은 주몽의 아버지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임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주몽의 혈통이 하늘 즉 태양과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의 ‘알’은 현실의 질서를 상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주몽이 ‘알’을 깨고 탄생한 것은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왕검’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지도자가 제사장을 겸했던 상고 시대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4. 정답 ⑤

윗글의 ‘이십일 일’이 고대 제천 행사와 관련되어 전하며 축제적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A]를 통해 ‘곰’과 ‘범’이 사람이 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썩’과 ‘마늘’만 먹고 동굴 속에서 버티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썩’과 ‘마늘’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며, ‘썩’과 ‘마늘’만 먹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이해할 수 있다.

15. 정답 ④

꿈이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인간 지향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를 인본주의와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주몽 신화'에는 '천제-해모수-주몽'의 삼대기 구조가, (나)에는 '환인-환웅-단군왕검'의 삼대기 구조가 나타난다.
- ② '곰'은 당시 곰을 숭배했던 부족의 토tem이라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호랑이'와 달리 '곰'이 시련을 견디고 인간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곰을 숭배했던 부족이 호랑이를 숭배했던 부족에게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지만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존재로 볼 수 있으며, 동굴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매개 지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왕검'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지도자가 제사장을 겸했던 상고시대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6. 정답 ①

- ㉠에서 햇빛이 방 속을 비춘 후로 유화가 알을 낳는 것은 당시의 태양 숭배 사상이 반영된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인'이 하늘의 혈통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② ㉡의 '알'은 현실의 질서를 상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주몽이 '알'을 깨고 탄생한 것은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을 통해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주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을 통해 '곰'은 환웅이 제시한 금기를 지키고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의 민속적 금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⑤ ㉤에서 단군왕검이 일천오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인물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한다.

17. 정답 ②

㉠에서 햇빛이 방 속을 비춘 후로 유화가 알을 낳는

것은 당시의 태양 숭배 사상이 반영된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것은 주몽이 알을 깨고 태어나는 부분이다.

- ① ㉠은 유화가 집에서 쫓겨 난 이유로, 당시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른 결혼이 이루어졌고 이성 교제에 제약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③ ㉢은 주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 말을 들은 물고기와 자라가 주몽을 도왔다는 내용을 통해 신성성이 드러난다.
- ④ ㉤에서 단군이 천상의 존재인 아버지와 지상의 존재인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의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왕검'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고조선이 정치적 지도자가 제사장을 겸했던 제정일치 국가임을 보여 준다.

18. 정답 ①

- (가), (나) 모두 건국 신화인 것은 맞지만, 시련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가)의 주몽뿐이다.
- ② (가)의 햇빛을 받아 알을 잉태하였다는 내용은 태양 숭배 사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주몽이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으며,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났다는 내용과 (나)의 단군왕검이 일천오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통해 신이한 능력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는 건국 시조인 주몽의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능력을 통해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 ⑤ (가)에서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고 해치려 한다는 점에서 대립 관계의 인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오이 등 세 사람은 주몽을 도와 부여를 탈출하고 건국을 돕는다는 점에서 조력 관계라고 분류가 가능하다.

19. 정답 ③

고난과 시련을 겪고 위업을 달성한 것은 (가)의 주몽뿐이다.